



3면

전북 정치권, 선거구 축소안 반발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음 10월 25일) 제3400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형 바이오산업’ 육성 본격

전북특자도 비전 실현도, 미래첨단산업 일환

글로벌 생명경제 비전 바이오융합 핵심과제 등 세계바이오혁신포럼서 김지사 기초발제 나서

전북도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첨단산업으로 ‘전북형 바이오산업’ 육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리는 2023 세계 바이오 혁신포럼(World Bio Innovation Forum, 이하 WBIF)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클러스터’를 주제로 바이오산업 육성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세계 바이오 혁신포럼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의 최신 동향과 기술에 대해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방식으로 시작해 올해는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와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이 주최하는 전문가 회의이다. 포럼 첫날인 6일에는 ‘바이오 클러스터’와 ‘오가노이드&줄기세포’를 주제로 회의가 시작돼 이날 첫 번째 객션주제인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첫 번째 기초발제자로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1월, 전북특



6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2023 세계 바이오 혁신포럼’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클러스터’를 주제로 기초발제자로 나서 전북형 바이오산업 육성 필요성과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반영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주제로 전북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비전과 전략, △바이오산업 여건 및 과제, △전북형 바이오융합산업 핵심과제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 세계의 바이오 산업 주요동향과 전북 바이오 산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북형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략에 대한 글로벌

바이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하고, 고품질의 오가노이드를 개발·적용할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북도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형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모색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의 풍부하고

탄탄한 바이오 자원과 기반을 활용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발 앞서 정책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전북대학교와 KAIST와 함께 산업 역량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국내·외 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계바이오혁신포럼은 ‘바이오 클러스터’와 ‘오가노이드&줄기세포’ 주제 이외에도 ‘바이코로바이옴’, ‘비교종양학’, ‘반려동물 식의약’, ‘반려동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정’ 등에 대해 글로벌 바이오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참가해 열린 토론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김재훈 기자

변산해수욕장 ‘해수부 관리 우수’

안전관리·4계절 활성화사업 등 높이 평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2023년 전국 해수욕장 운영 평가에서 시설·안전, 물가관리 뿐만 아니라 4계절 이용 가능한 테마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등을 최종 평가해 전국 3개 우수해수욕장 중에 하나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안군은 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변산해수욕장은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류로 구명조끼의 무작용을 제정하고 구명조끼를 물놀이 이용객에게 무료로 대여했으며, 오토캠핑장, 야영장, 전망대, 어린이 물놀이장, 인공암벽장, 경관조형 등 다양한 체험 및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손꼽힌다. 또한, 테마해수욕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해안 최고의 낙조를 테마로 운영해 4계절 관광 목표로 부안 노을과 함께하는 버스킹, 변산해수욕장 비치파티, 붉은노을 축제 등 축제를 활성화하고, 그 중 변산해수욕장과 변산비치파티와 붉은노을축제는 2023년 ‘대한민국 발발곡곡 100선’에 선정돼 아간관광 명소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변산해수욕장에서는 4계절 관광을 목표로 부안요트대회, 예술인과 함께하는 프리마켓, 미스변산선발대회, 국악한마당, 스포츠캠핑 페스티벌, 조각품 전시회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안전은 물론 4계절 모두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테마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집중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해수욕장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청정환경 유지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1933년에 개장한 변산해수욕장은 서해안 대표해수욕장의 면모를 갖춘 빼어난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된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군산 강소기업, 새만금산단에 275억 투자

성현, 전북도·군산시·새만금개발청 등과 협약 체결
배터리소재 생산용 설비·에너지 저장용기 공장 설립
내년 하반기 착공 2026년 말 준공... 70여명 인력 채용

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 투자액은 275억원으로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며, 70여명의 인력이 신규 채용될 예정이다.

기업 측은 협력사 등의 새만금 입주와 이차전지관련 기업들의 줄이은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결정했으며, 새만금에서 배터리소재 생산용 설비제조 사업기반을 강화해 나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새만금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배터리소재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공급해 지역 상생과 지역 내 협력사들의 동반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이 그동안 유치한 대규모 투자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될 것 이다.”면서, “앞

으로도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새만금 고유의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2014년 군산으로 이전한 전북 향토기업인 ㈜성현의 이차전지 관련 신산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 투자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새만금산단에 입주예정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성공을 기원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도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소재 유망강소기업인 ㈜성현이 새만금 국가

산단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우리 지역의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성 ㈜성현 대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더 많은 지역 중소제조기업들이 연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군산=김관곤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www.jcc.or.kr